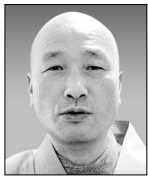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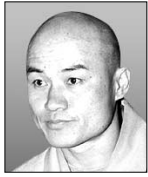


일주문



삼존불 점안법회
장성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은 4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곡우제를 겸해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송광사 삼월불사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4월 23-24일 국사전에서 제796주기 보조국사 종재를 여는 등 삼월불사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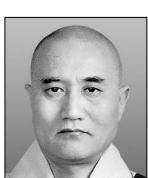
장학금 전달 및 점등식
성북구불교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4월 19일 오후 6시 성북구청 광장에서 청소년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점등식 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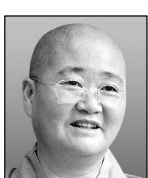
대구 반야사 낙성식
대구 반야사 주지 도오 스님은 4월 26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낙성 및 미얀마에서 이운해온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주지취임 및 암도 스님 초청 법회
김포 동산사 주지 법전 스님은 4월 23일 오전 10시 동산사 대웅전에서 주지취임 및 첫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성지순례 경 단합대회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대구교구중앙무원장 석담 스님은 대구교구 27명 스님들과 4월 4-6일 거제 미륵사에서 성지순례 경 단합대회를 열었다.



제1회 아생화전시회
양주 대원정사 주지 해원 스님은 신도회 및 우리꽃 사랑모임(회장 이말순)과 함께 5월 4-7일 제1회 아생화전시회를 개최한다.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개관식
청담문화센터 이근우 평생교육원장은 4월 20일 오후 1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개관식을 봉행한다.

문태준 시인 제21회 소월시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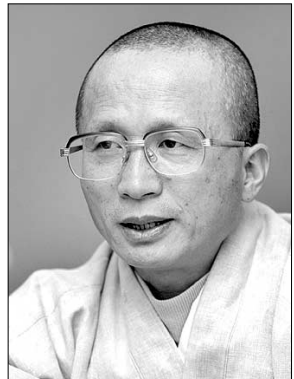
문태준(36·불교방송 PD·사진) 시인이 제21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그때에는'의 15편. 상금은 1300만원이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 시인은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세계불교 구심점 세우기에 동참을...”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세계순례 한국展 여는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장 현장 스님(사진)은 불교계에서는 티베트 불교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많은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현재 티벳박물관을 통해 티베트 불교문화를 한국에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87년 티베트 성지순례를 갔다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을 만나고 나서 한국과 한국불교가 근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티베트인들은 고스란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티베트 불교를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스님이 이번 ‘마이트레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리는 ‘미륵불상 심장전(心臟殿) 사리 세계순례 전시회’의 한국 측 공동주최자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 신앙심이 국내 불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불교의 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불교의 구심점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세계불교 통합과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화를 의미합니다.”

“티베트인들에게 불교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티베트인들은 불법의 힘을 믿고, 또 그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정치인이나 문화가 등 유력인사들이 티베트 불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현장 스님은 이번 전시회와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불교의 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것 외에 티베트 불교의 순수성과 ‘다르마’(法)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절대

현장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힘이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화로서의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장 스님이 티베트 불교에 매료된 이

현상 스님은 “40여명 가량은 대원사에서 숙박이 가능해 불자들이 차 사리전시회를 관람하고 인근 보성차밭과 해남 미항사, 화산 운주사 등을 둘러보는 일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이번 사리전시회에 관심을 가져 주길 희망했다. (061)852-1755

한명우 기자

“법인 설립·조직 활성화에 최선”

불교산악인연합회 양춘동 심임총재

“산악인연합회를 공식 법인으로 만들고 분산돼 있는 조직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역조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 활동하며 신행활동을 꾸준히 해온 양 총재는 “산과 사찰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며 “남북불자 금강산 공동 산행 등 주제가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행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월 1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불교산악인연합회 6대 총재로 추대된 양춘동(68·사진)씨는 조직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0여개 단위 산악회에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결속력이 약하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 양 총재는 “산악인연합회가 회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면서도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0여년간 조계사 반야회에

유철주 기자

스리랑카서 사경법회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

“사경(寫經) 수행의 본고장 스리랑카에 1,700년 한국 사경의 정수를 보여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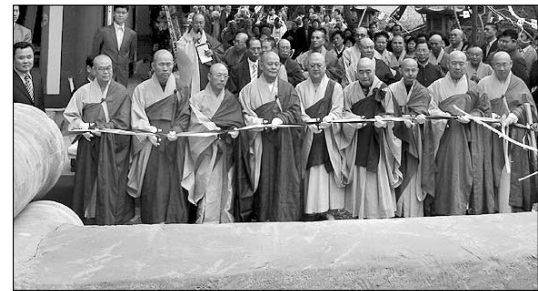


4월 16일 스리랑카 마라다너 사원에서 ‘고려 전통사경 법회’를 봉행한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사진)은 이번 법회가 고려시대 찬란했던 사경 전통을 세계화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스리랑카 사경법회를 계기로, 빠르민 울 가을 경에 중국 산동성 제남시 인근 전통사찰과 일본 등에서도 고려 전통 사경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경산 스님 조사전 건립불사 기공법회



서울 적조사(주지 자제는 불교정화에 헌신했던 경산 스님 조사전 건립불사 기공법회를 4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관 스님 등 문도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적조사 대웅전 복원불사 회향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기공법회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동학원 개교 60주년 기념식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편)이 개교 60주년을 맞아 4월 7일 광동중학교 강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광동학원은 합동대법회(5월 중순), 음악회(6월), 운약제(10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또 10월 경교문 신축 기념식을 거행하고 <광동 6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 호산마을 복지관 준공 법회



광주 대각사(주지 도산)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호산마을 복지관이 4월 8일 준공됐다. 준공법회에는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 스님들과 최인기 국회의원, 이영남 화순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호산마을 복지관은 336평의 부지에 5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어졌다.

부산 내원불교대학 제1기 입학식



부산 내원정사 내원불교대학(학장 정원)은 4월 12일 내원정사 만물전에서 제1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내원정사는 2002년 3월부터 진행해오던 내원불교양양대학을 2006년 4월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으며, 신입생 202명을 1기생으로 매주 화, 수요일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인천불교회관 개원2주년 기념법회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은 4월 9일 개원 2주년기념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대법회를 열었다. 대전 영선사 회주 성관, 경주 연지사 주지 법진 스님 등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스리랑카 국립무용단의 ‘불교민속무용’ 공연과 경로잔치도 열렸다.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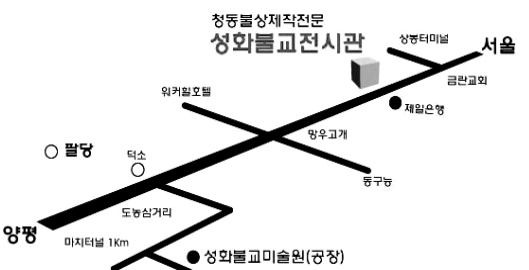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드로 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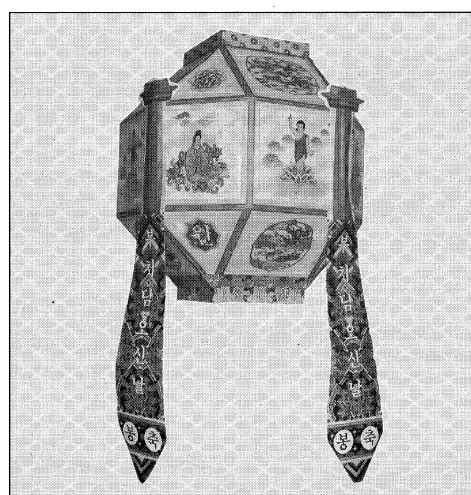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물담고 몇 스리온 등, 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입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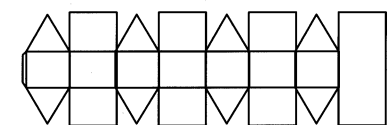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볼품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팔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엔텍
농협 415051-51-000075 예금주:(주)국민피엔텍